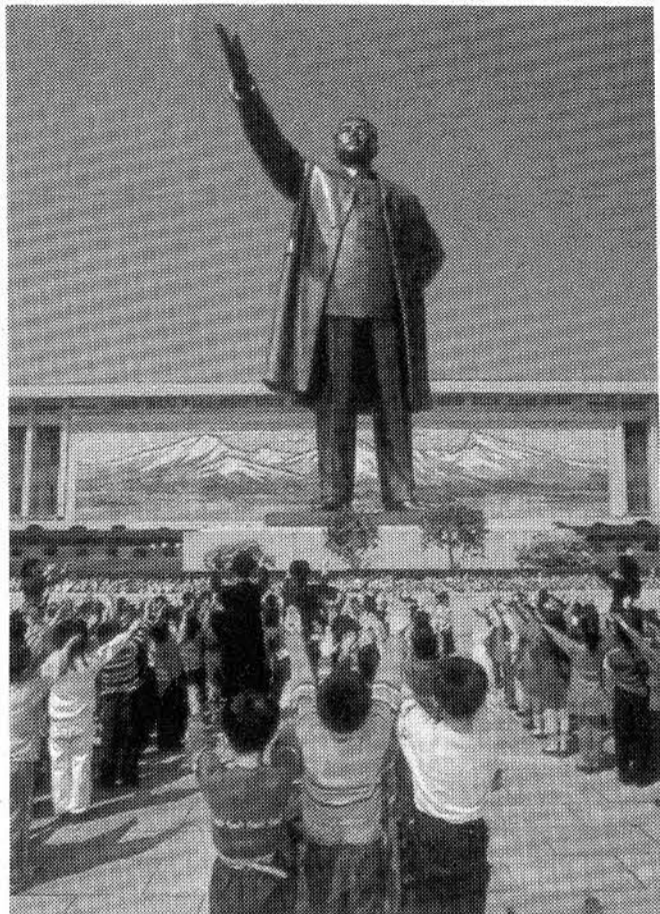


쇼씨구생일 '효성축전' 최대경사

북한 사람들에게 봄은 언제 오느냐고 물으면 2월16일부터 온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김정일의 생일인 이날부터 4월 15일 김일성주석의 생일까지 이른바 '효성의 축전'이 이어지고 더불어 봄이 찾아온다. 북한 언론들은 두 생일날을

저녁무렵이 되면 산보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잔디밭이나 나무아래 모여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고 태권도 품새를 연습하는 사람들도 있다. 북한에서는 이 명절들을 크게 생각하고 있으나 전통명절인 설날과 추석, 한식

따라갔다. 그들은 특별히 나를 주목하지 않은 채 철길을 따라 30분동안 걸은 뒤 소나무가 많은 산으로 올라갔다. 높지 않은 산에는 곳곳에 성묘나온 가족들이 보였다. 나는 이곳에서 한 가족의 성묘 모습을 지켜보았다.



金日成동상앞에 경의를 표하고 있는 북한의 어린이들. 쇼부자 생일이면 현화를 위해 행렬이 꼬리를 잇는다.

로 차례를 지냈는데 무덤을 끌어안고 통곡하며 우는 여자도 있었다. 차례가 끝나자 가족들은 모여 앉아 음식을 나눠 먹었다. 어떤 무덤에는 죽은 사람의 사진과 꽃이 놓여 있기도 했다. 북한은 지난 89년 40여년만에 처음으로 설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모든 국가기

동신문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설맞이는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명절이므로 사람들마다 새로운 기원과 기대를 가지고 명절을 손꼽아 기다렸다...오늘도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전하여 오는 음력설을 즐겨 맞으며 뜻깊게 보내고 있다」 지난 89년5월12일 평양의 모

타스통신 前평양특파원이 본

북한의 풍물

< 4 >

「조선민족의 제일 중요한 국가적인 명절」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른 명절과 비슷한 행사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평양시민들은 2월16일과 4월15일이면 이른 새벽부터 꽃을 들고 만수대에 있는 김주석의 동상을 찾아간다.



북한주민중 한 가족이 조상묘에 성묘를 하고있다.

명절

평양 시내에 있는 온실들은 이 시기에 맞추어 꽃을 재배한다. 평양 시내 상점에는 평소에 거의 없는 돼지고기 닭고기 명태 야채 술 사이다가 진열되고 다른 상품들도 자유롭게 판매돼 근로자들이 상점에 가득 찬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2월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평양의 큰 거리에 세워진 화단에는 미리 재배한 꽃들이 눈속에 비닐로 덮여 활짝 피어있다. 그러나 하루만 지나면 이 꽃들은 얼어서 시들고 만다.

자하르젠코 이완 타스통신 서울지국장

「생신」때맞춰 꽃재배

김주석과 김정일의 생일 기간 중에는 새 공장이나 기업소가 가동하고 평양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는 기념사진 미술전시회 체육대회가 열린다. 학생들은 북한 지도자들과 관련이 있는 명승지와 사적지를 답사하는 행사를 갖는다. 평양 시민들과 인근지방 주민들은 이 기간에 김주석의 만경대 고향집을 다녀가고 식물원을 방문한다. 식물원을 찾는 이유는 이곳에 김일성화와 김정일화가 재배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로동당 창립기념일인 10월10일 또한 다른 명절과 같은 공휴일이다. 이때가 되면 평양의 거리공원, 그들이 많은 가로수 밑에는 사람들이 가득하다. 지하철 통일역을 거쳐 모란봉공원으로 야유회를 가는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는 시기이다.

을 한국에서처럼 지내고 있다. 지난 89년 추석날이던 9월14일 나는 타스통신 평양지국의 차를 타고 평양에서 평성을 향해 떠났다. 그때는 보통때와는 달리 자동차가 많아 좁은 도로를 따라 운전하기가 어려웠다. 짐보따리를 든 승객들로 만원인 버스와 화물자동차가 긴 행렬을 지어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었다.

추석맨 교통체증도

약 20분후 차가 밀려 정지하자 차에서 내려 성묘를 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가족중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성묘 행사를 모두 지시했다. 무덤앞에 있는 석물위에 떡 술 사과 배등 음식을 차려놓은 뒤 서있는 가족들에게 손짓을 했다. 그러자 가족들은 자리위에 무릎을 꿇으면서 절을 올렸다. 할머니는 석물위에 앉은 채 아들인 듯한 중년남자에게 신호를 보냈고 이 남자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에게서 술잔을 받은 뒤 잔을 채워 석물위에 올려 놓았다. 할머니가 술잔을 들고 봉분 주위에 조금씩 뿌리자 남자는 세번 큰절을 했다. 다른 가족들도 비슷한 방식으

관과 학교가 문을 닫아 두번씩 새해 명절을 맞게 되었다. 설날이 인정된 첫해인 89년2월6일에는 평양에서 특별한 행사가 없었고 거리와 상점, 식당에 북한 국기로 만든 장식만 설치됐다. 그 다음해에는 백화점 입구에 나무와 종이로 만든 대형 등이 매달려 있었다. 백화점엔 「증산」구호 등에는 「증산」과 「절약」이라는 구호가 적혀있어 놀랐다. 북한 언론들은 이때부터 옛 전통을 살리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90년1월27일자 로

란봉 기슭에 있는 연화사에서 석탄절 기념법회가 부활되었

석탄절을 성탄절로

다. 북한에서는 석탄절을 「성탄절」이라고 부른다. 조선불교도연맹 평양시위원장 김진경이 설교문을 낭독했다. 그는 『북과 남의 모든 불교도들은 성탄절을 맞으면서 하루빨리 이 땅위에 여래의 이상이 꽃피는 불국토정립을 위해 화해와 화합으로 통일의 문을 열어 제끼기 위한 현실참여의 실천수도에 응맹진전할 결의를 굳게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상점마다 술·사이다·고기 특별판매

89년 舊正공식인정... 추석·한식풍습 南韓과 같아
노동당창립기념일 공휴일지정 야유회인파 물결

